opusdei.org

성 호세마리아 시성 9 주년

이번 10월 6일 시성 9주년을 마지하며 요한 바오로 2세의 강론 말씀을 다시 기억 해본 다.

2011-10-5

2002년 10월 6일 호세마리아 에스크 리바 성인 시성미사의 요한 바오로 2 세의 강론 1. "누구든지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 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 입니다 "(로마 8:14). 조금 전 봉독된 사도 바오로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가 복자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의 시 성식이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 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그 분은 유순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랐으며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하 느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다. 고 확신하였습니다. 이러한 근본적인 그리스도교적 진리는 그분의 가르침 에 있어서 지속적인 주제를 이루었습 니다. 참으로 그분은 자신의 영적 자 녀들에게 그들의 내적인 삶, 즉, 하느 님과 그들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하는 삶, 직업적이며 사회적인 삶 등 모두 현세적 삶의 실재성의 일부를 이루는 요소들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"거룩 하고 하느님의 현존으로 가득 찬" 오 직 하나의 삶을 이루도록 성령께 기 도하기를 계속해서 권면하였습니다. 그분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: "우리는 가장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

있으며 물질적인 것들 속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을 발견하게 됩니 다" (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와의 대 담, 114항). 그분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또 몹시 필요한 것입니다. 세례를 통해서 그 리스도의 지체로 통합됨으로 말미암 아 신앙인은 주님과 중단되지 않고 활력에 넘치는 관계를 정립하도록 불 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 또한 신앙 인은 성덕으로 나아가며 인류의 구원 사업에 현력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 다.

2. "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"(창세 2:15). 오늘 제1독서에서 봉독된 창세기의 말씀은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이 땅을 "경작하고"(till) "돌보도록"(keep) 맡기셨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. 이 세상의 다양한 현실 속에서 활동하는 신앙인들은 이처럼 신성한 보편적 섭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 은총에

힘입어 행해지는 노동과 기타 여러 활동들은 일상적 삶 속에서 성화되는 수단으로 변모하게 됩니다. 호세마리 아 성인은 말하기를 신앙이 있는 그 리스도인의 평범한 삶이란 "그가 일 을 할 때나 휴식을 취할 때, 기도를 할 때나 잠을 자고 있을 때 등 언제 어느 때라도 하느님께서 항상 현존하 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"(묵상집, 1954년 3월 3일)라고 하였습니다. 일 상적 삶에 대한 이러한 초자연적 통 찰은 구원적 전망에 있어서 놀랄 만 치 풍요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것인 데, 그것은 겉보기에는 단조로이 흘 러가고 있는 평범한 현세의 상황들 속에서조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오시며 우리는 그분의 구원사업에 협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. 따 라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다음과 같이 확언하는 바를 더욱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: "개인적 집단적 인간 활동, 곧 인간이 여러 세 기를 거쳐 자신의 생활 조건을 개선 하려는 저 거대한 노력 그 자체가 하

느님의 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 진다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일이"(Gaudium et spes, 34항).

3.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내적으 로부터 쇄신시키는 것, 이것이 바로 오푸스 데이의 거룩한 창설자가, 오 늘 성인품의 영광에 오르는 광경을 지켜보는 기쁨을 누리는 친애하는 형 제자매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상 입니다. 그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 게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의 참된 신 원을 희석시키려고 위협하는 유물론 적 문화에 굴복당하지 말아야 할 당 위성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. 그분은 그리스도의 신앙이란 체제순응주의 와 내적인 무기력에 맞서는 것이라고 재삼 역설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. 그 분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인종과 계급, 사회적 상황 또는 연령이 어떻 든 간에 거룩한 삶에로 초대받았다는 인식을 사회 속에 널리 전파해야만 할 것입니다. 첫째로, 여러분들 자신 이 복음적 형태의 겸손과 봉사 하느

님의 섭리에의 내맡기는 생활을 하도록 애쓰며 성령의 부르심에 끊임없이 귀기울이여 살도록 하면서 성인이 되도록 분투하십시오.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"이 땅의 소금"(마태 5:13 참조)이 될 것이며 "여러분들의 빛이 사람들 앞에서 밝게 빛나서 그들이 여러분들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"(마태 5:16 참조).

4. 복음적 가치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필경 몰이해와 어려 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. 주님께서 는 당신을 따르도록 부르시는 모든 이들을 십자가의 신비로운 힘으로 정 화시키고 완성시켜 주십니다: 그러나 오늘 새로이 성인품에 오르신 이 분 은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안에서 우리 는 빛과 평화 그리고 기쁨을 발견합 니다: Lux in Cruce, requies in Cruce, gaudium in Cruce!"라고 하였습니다. 1931년 8월 7일 미사 집전 중에 성인 의 영혼에 메아리쳤던 "내가 이 세상

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 다 (요한 12:32)"라는 말씀은 그 이후 로도 줄곧 울려퍼졌는데,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 성인은 세례받은 이들의 사명은 모든 인간의 실재성 위로 그 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올리는 데 있 음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였으며 자 신 안에 모든 인간적 상황을 복음화 시키고자 하는 열정적인 소명이 불타 오르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. 그러자 그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와 같은 초대, 즉 우리가 조금 전 복음 낭독에 서 들었던 "Duc in altum!"(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!)의 말씀을 받아들 였습니다. 성인은 이러한 초대를 자 신의 영적인 가족 전체에게 전해주어 그들이 성교회에 효과적으로 친교와 사도적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. 오늘 이러한 초대는 우리 모두 에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: 거룩한 스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

"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쳐라"(루카 5:4).

5. 이처럼 힘든 사명을 완수하기 위 해서는 기도로 힘을 얻으며 지속적으 로 내적인 성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 다. 호세마리아 성인은 기도의 달인 이었습니다. 그분은 기도가 세상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비상한 "무기"로 간주하였습니다. 그분은 "우선 기도 하고, 그 다음으로 보속하며, 세 번째 에 가셔야 행동해야 한다"라고 언제 나 권고하였습니다(길, 82항). 이러한 권고는 역설이 아니라 영속적인 가치 를 지니는 진리입니다. 사도직이 결 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와 열성적이고 지속적인 성사생활이 요 구됩니다. 요컨대 성인들의 삶이 성 덕에 도달하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 니다. 주님께서 교형 자매님들을 도 와주셔서 이러한 수덕적이고 선교적 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. 오푸스 데이의 거룩한 설

립자가 "Spes nostra, Sedes Sapientiae, Ancilla Domini!"(우리의 희망이요 상지의 옥좌이며 주님의 종)이라는 호칭으로 즐겨 부르던 성모 마리아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.

우리 성모님께서 모든 이로 하여금 복음의 진정한 증거자가 되어 어디서 나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이 바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바 랍니다! 호세마리아 성인의 표양과 가르침이 우리에게 자극이 되어 지상 의 나그네 생활이 끝날 때 우리도 하 늘나라의 복된 유산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! 그곳에서 우리는 천사, 성 인들과 더불어 하느님의 얼굴을 관상 하고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을 노래할 것입니다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

seong-hosemaria-siseong-9junyeon/ (2025-11-20)